

베드로전후서의 기록 연대를 A.D. 64년 내지 65년 정도 즉, 로마의 아주 악한 황제인 네로 황제가 대 핍박을 하기 전후의 시대로 봅니다. 베드로 자신도 핍박을 많이 받은 자였고,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도망을 다니거나 흩어지고 숨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기를 권면하는 서신이 베드로전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 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류 최초로 평범한 목수인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광을 얻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후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목양의 위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고 지상 명령을 받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날마다 열한 제자와 함께한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했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니까 곳곳에서 찾아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때문에 앓은 앓은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여 그 앓은뱅이가 뛰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하는 모습도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역사도 경험했고, 사도행전 12장에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여시고 깨워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보기에 별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 앞에 있던 그 선생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오신다 하던 메시아이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경험한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확실하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른다.” 이런 말로 위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벧전1:1-2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택하심을 받은 자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미리 알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걸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선하고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평강이에요. 꼭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벧전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생각할 때마다 매일 기쁘고 찬송이 막 우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왜 죽은 소망이라고요? 헛된 소망, 없어질 소망, 실망할 소망, 다 놔두고 갈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벧전1: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상의 것은 썩잖아요. 돈도 지키기 어렵고 명예도 권력도 다 없어집니다. 잘 모르겠거든 장례식에 가보세요. 다 놔두고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더럽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흠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꽃이 시들 듯이 쇠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 동안 성령이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정도지만 아버지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보다 많이 아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 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벧전1: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벧전1: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잠깐 근심해요? 핍박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더 기쁜 것은 뭐예요?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벧전1: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정제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금을 녹이면 불순물이 빠져나간대요. 나중에는 순수한 금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환란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할 때 이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세상 것을 끊고 욕심을 끊고 죄를 끊으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금 같

은 믿음으로 정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십니다. 저도 간 이식 수술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회개를 그리 많이 했대요. 사람은요 부패 돼 있어요. 너무 좋은 일만 있고 너무 기쁜 일만 있고 너무 편안하면 욕심도 불고 교만도 불고 세상 것도 불고 쾌락도 불고 덕지덕지 붙어요. 그런데 힘들면 기도해서 그 불순물을 자꾸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순결한 믿음,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할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여, 나의 믿음이 금같이 순결하게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 끊으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시면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갑니다. 그때, “김 집사, 수고했다. 너의 믿음이 정말 귀하다. 그 어려움도 견뎌구나. 충성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무슨 목사야, 너는 목사가 돼서 맨날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큰소리만 치고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면서 좀 버려지게 되더라구요. 제가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지금 같은 믿음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악해요. 안 버려지더라구요. 여러분 잘 버려지십니까? 어려움 당할 때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복된 성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

<http://www.onnurimission.org>